

광주·전남 주식 투자 주춤...거래대금 '반토막'

지난달 거래대금 8조6206억 37개사 시총 1년새 11.9% ↓ 금리 인상에 예금은 증가

지난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예금이 늘어난 반면 주식투자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63조 원 가량 주식투자를 했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조 원(-36.3%) 가량 빠진 금액이다. 11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21년 12월 광주·전남 주식거래 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투자자들의 주식거래대금은 8조6206억원으로, 전달보다 20.1%(-2조1662억원) 감소했다.

지난 2020년 12월 거래대금 19조8815억원에 비해서는 반토막(-56.6%) 났다. 지역민들의 주식투자 감소 추세는 지난해 7월부터 지속됐다. 지난해 7월 광주·전남 주식거래대금은 13조220억원이었지만 8월 12조5887억원, 9월 9조3911억원, 10월 8조1869억원으로 석 달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11월에는 10조7869억원으로 반짝 증가했지만 다음달 8조6206억원으로 반락했다. 소액투자자를 가리키는 '개미' 투자열풍으로 지난해 1월에는 광주·전남 주식투자 22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하반기부터 주식투자는 사들해졌다. 전년과 비교한 지난해 주식거래대금 감소율은 7월(-24.4%), 8월(-31.4%), 9월(-45.4%), 10월(-18.0%), 11월(-31.1%), 12월(-56.6) 등으로 6개월 연속 지속됐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광주·전남 주식거래대금은 62조802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98조5436억원)에 비해 36.3%(-35조7407억원) 급감했다. 전반적인 주식시장 위축으로 광주·전남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시총)은 2020년 말보다 3조1358억원(-11.9%) 증발했다. 지난 연말 광주·전남 37개사(코스피 16개·코스닥 21개) 시총은 23조1581억원으로, 2020년 12월(26조2939억원) 보다 11.9%(-3조1358억원) 감소했다. 1년 새 코스피에서는 2조698억원(-9.2%)이 빠졌고, 코스닥에서는 1조660억원(-27.3%)이 감소했다. 하지만 전달보다 코스피 상장사는 1조1783억원(6.2%), 코스닥은 909억원(3.3%) 증가하는 등 총 1조2692억원(5.8%)이 늘어났다. 코스피에서는 금후타이어가 전달보다 시총이

17.0%(1924억) 증가했으며, 부국철강(99억원·13.1%), 다이나믹디자인(77억원·10.9%) 등도 늘었다. 한전KPS는 0.4%(-67억원) 감소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가운데 시총이 늘어난 기업은 KPX생명과학(574억원·61.1%), 정다운(198억원·26.1%), 대신정보통신(82억원·21.2%) 등이 있다. 박셀바이오(-1400억원), 피피아이(-8억원) 등은 감소했다. 한편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투자자들의 코스피 거래대금은 3조9400억원으로, 전달(5조100억원)보다 21.4%(-1조700억원) 줄었다. 코스닥 주식거래대금도 5조7600억원에서 4조6700억원으로, 18.9%(-1조900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지역투자자들의 유가증권 상위 투자종목은 삼성전자가 전달 1위 카카오톡을 제치고 다시 1위로 올랐다. 11월 거래대금 1위였던 카카오는 8위로 밀려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도시형 영농자재센터 개소 광주 북구 동림동에

광주시 북구 동림동에 330㎡ 규모 도시형 영농자재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광주농협은 지난 10일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영농자재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곳에서는 각종 농작업 기계와 농기구를 구매할 수 있다. 시설원예자재, 전기자재, 관수자재 등의 영농자재 뿐만 아니라 도시농업·치유농업과 관련된 상품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 농업인 조합원 뿐만 아니라 지역민도 이용 가능하다. 문병우 서광주농협 조합장은 "자재센터 개업으로 다양한 영농자재와 생활자재를 공급해 조합원과 지역민들의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영농 생산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 소득 증대 및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올해부터 광주시 남구 1금고를 맡게 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왼쪽 네 번째)이 지난 10일 남구청사로 백운동지점을 이전했다. <광주은행 제공>

'남구 1금고 탈환' 광주은행, 백운동지점 남구청사에 등지

지난해 광주시 남구 1금고를 탈환한 광주은행이 남구청에 새로 등지를 틀었다. 광주은행은 지난 10일 백운동지점을 남구청사 1층에 이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송종욱 은행장은 김병내 청장, 박희을 남구의회 의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 공공

금고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은행은 올해부터 4년 동안 제1금고로서 일 반회계를 담당하며 약 1500억원을 운영하게 된다. 광주은행은 광주시와 5개 구(區) 전담은행을 받고 있다. 송 행장은 "광주은행을 믿고 신뢰하며 지역살림

을 맡겨주신 광주 남구를 비롯한 지역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적시의 금융지원과 진정성있는 금융상담,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며 광주·전남 대표 은행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정보문진원 창업도약패키지, 명품강소기업 '에니트' 매출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27.38 (+0.66)
↓ 코스닥	969.92 (-10.46)
↓ 금리(국고채 3년)	2.038 (-0.020)
↓ 환율(USD)	1194.70 (-4.40)

10억원 투자 유치 성공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광주시 명품강소기업을 배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에니트는 최근 광주시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되고 기술보증기금에서 1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

진흥원은 지난 2017년부터 총 211개사를 대상으로 205억9000만원에 달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창업도약패키지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에니트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보통신기술 전문기업이다.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 서비스인 광섬유 음향방출센서를 개발하고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온 '뚝'...채소값 두 자릿수 '쑥'

전년동기대비 딸기 55.6%·청양고추 25% 올라

부쩍 추워진 날씨에 딸기와 일부 채소류 가격이 전년보다 '두 자릿수' 상승했다.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 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농산물 소식지 '얼마오 2201호'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매판매된 딸기 100g 값은 28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55.6%(1000원) 올랐다. 딸기는 가을 생육기 고온현상과 최근에는 한파를 겪으며 작황이 부진한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딸기 외에도 주요 채소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취침이 10개 가격은 1만원으로, 전년보다 11.1%(1000원) 올랐다. 애호박 1개는 1700원에서 2000원으로, 17.7% 상승했다. 청양고추 100g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25.0% 올랐다.

청양추 100g 가격은 최근 기온 하강 영향으로 2주 전보다 28.6%(200원) 오른 900원으로 나타났다. 조류 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달걀(특란) 30개 가격은 1년 전보다 15.4%(830원), 2주 전보다 1.1%(70원) 오른 6230원으로 조사됐다. aT 광주전남본부는 "흐린 날씨에 예보되고 있어 일조량 감소 등 생육조건 악화로 호박 등 과채류 출하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급식수요 감소와 설 명절을 앞둔 소비위축 등이 예상되어 추가적인 가격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kam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모집

광주상의, 30곳 선착순

광주상공회의소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NCS는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으로 기업에서는 NCS를 도입을 통해 직무 중심의 인사 배치와 객관적인 성과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또 효율적인 인재채용 시스템과 재직자 역량 강화 프로세스 구축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된다. NCS 컨설팅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중소·

중견 기업이 대상이다. 분야별 외부 전문가 2인이 현장을 방문해 해당 기업 관계자와 함께 기업 현황과 직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기술서 개발, 역량 기반의 인사체계 구축, 채용·교육 훈련 방안 등을 설계하게 된다. 해당 컨설팅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올해 30개사를 선착순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광주상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앞서 광주상의는 2014년부터 8년간 총 121개사에 대한 NCS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NCS를 활용해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손해보험협회

돈돈한 지킴이 국민건강!

실손의료보험!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